

# '시 논란' 부른 역대급 천체 사진



▲ NASA가 올해 가장 뛰어난 '천체 사진' 중 하나로 선정한 이탈리아 사진작가 바레리오 미나토의 사진. 사진=facebook(미나토) 캡처

아 피에몬테에서 촬영한 것으로, 수퍼르가 대성당과 몬비소 산, 초승달이 정확하게 삼중 정렬을 이룬 모습이다.

NASA는 "사진작가는 6년 동안 5차례나 (촬영을) 시도했지만 날씨가 좋지 않았다"며 "마침내 열흘 전 날씨가 완벽해져 작가의 꿈이 실현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사진에서는 달이 초승달 모양으로 촬영됐는데 노출 시간이 충분히 길어 '다빈치 글로우'라고 불리는 이중 반사된 지구 광이 달의 윗부분 전체를 비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빈치 글로우'는 지구에서 반사된 태양 빛이 달의 어두운 부분을 희미하게 비추는 현상이다.

미나토는 이탈리아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토리노 지역에서 도시를 바라보며 사진을 찍다가 어느 순간 이런 사진을 찍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2017년 대성당과 산, 달이 완벽하게 한 줄로 늘어진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장소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1년에 한 번 볼 수 있는데 지난 5년은 날씨가 흐렸다"며 "완벽한 사진을 찍는데 꼬박 6년이 걸렸다"고 했다. 미나토는 이 사진을 찍기 위해 날씨는 물론 달의 위상과 지평선에서의 위치를 10분의 1의 정밀도로 연구했다.

일각에서는 '포토샵이나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이에 미나토는 "기술만이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안 된다. 경이로운 광경을 보여주려고 할 때, 때로는 인내와 관찰력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결국 해냈다"고 말했다.

미나토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당 사진을 찍기까지의 과정을 영상으로 공유하기도 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올해 가장 뛰어난 '천체 사진' 중 하나로 이탈리아 사진작가 바레리오 미나토의 사진을 선정했다.

지난달 25일 NASA는 '오늘의 천체 사진(Astronomy Picture Of The Day, APOD)'으로 이탈리아 사진작가 바레리오 미나토의 작품을 공유했다. NASA가 공개한 사진은 미나토가 지난달 15일 오후 6시 52분경 이탈리아

# 한방 황로 좌훈스파

20가지 한방성분 황토좌훈으로 몸 깊숙한 곳까지 따뜻하고 건강하게!

좌훈기 및 좌훈 약재 판매

## 건강한 아름다움

- 신진, 산후 관리
- 체온 플러스, 순환 관리
- 갱년기 호르몬 밸런스 관리
- 디톡스를 통한 다이어트 효과
- 염증, 통증 완화
- 신진 대사와 면역력 증대



T. 773.739.3031  
124 Yorba Linda Blvd. Placentia CA 92870

■ 알고계셨나요?

## 잘못 알고 있는 역사 상식

▶ 나폴레옹은 키가 작지 않았다



'나폴레옹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다. 키 작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열등의식이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키는 '무려 1m70.7cm나 됐다. 프랑스대혁명 시대 평균 키는 1m67.6cm 정도였다. '우월한 기력지킴이'는 아니었지만 평균 이상은 분명했다.

# Linda Beauty

## 린다뷰티영구화장

Permanent Make-up

• 메이크업 아티스트 •

매직의 손 - 30년 경력 -

- Eyebrow
- Eyeline
- Lipline
- 점, 검버섯 레이저 (5볼 or 10볼) (한개 크기에 따라서)
- 탈모커버
- 무통 3D 자연눈썹 (마이크로브레이딩)
- 남자눈썹 전문

★ 잘못된 영구화장 깨끗하게 문신제거!



바로 하고 나가도 티가 전혀 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원하시는 스타일로

- 영구화장 개인지도 -  
(배우고 바로 손님 모실 수 있음)

T. 562.896.2024

예약 문의

9828 Garden Grove Blvd. #107, Garden Grove, CA 92844